

|                           |             |
|---------------------------|-------------|
| 노량진(오전)                   | 6시          |
| 주일에배                      | 오전(1부) 7시   |
|                           | 오전(2부) 10시  |
|                           | 오후(3부) 2시   |
| 서울 교회                     | 02)533-9191 |
|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             |



|                      |              |
|----------------------|--------------|
| 1부(오전)               | 7시           |
| 주일에배                 | 2부(오전) 10시   |
|                      | 3부(오후) 2시    |
| 수요일에배 저녁 8시 30분      |              |
| 인천 교회                | 032)763-9191 |
|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4월 10일 (제114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 Give & Forget

‘Give & Forget’

내가 신학원에서 ‘목회성장학’ 시간에 강의한 내용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Give and Take’ 원칙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상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특히 주의 종들이 ‘Give and Take’, ‘주었으니 받는다’는 계산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왜 섭섭한 줄 아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 ‘내가 심방해줬으니 당연히 뭔가 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안 주면 섭섭하고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내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으니 당연히 뭔가 주겠지.’ 생각했는데, 성도가 감감하면 괜히 섭섭하고, 나도 모르게 그 성도에게 섭섭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Give & Forget’, 주고 잊어라. 왜? 주님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 10:8)고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대가를 바라셨는가? 감사의 예를 드리라고만 하셨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돈에 쫓돌리셨는가? 아니다. 가룟 유다가 돈계를 가지고 따라다닐 만큼 풍부하셨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Give & Forget’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나는 38년 동안 집회를 하고 사례를 받아본 적이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로버츠 목사는 이런 나를 보고 ‘저런 목사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었다. 어느 집회에선가는 내가 사례를 받지 않으니까 주최 측에서 나와 일행에게 자그마한 금덩이를 선물로 주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우리 일행의 것까지 다 회수해서 현지 목사들에게 나눠주며 이것을 복음 전하는데 쓰라 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절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로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신다. 더 크고, 더 풍성한 것으로.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 Forget’ 하라.

# 지혜로운 자는 정보부터 얻는다

정확한 정보를 선점하는 일은 오늘날 정치, 경제, 군사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초유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전쟁도 따지고 보면 양국 수뇌부가 정확한 정보획득에 실패한 측면이 결국 오늘의 장기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푸틴의 경고가 내포하는 의도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했다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러시아군으로서도 대(對)우크라이나 전쟁을 속전속결로 마칠 수 있을 것이란 오판이 오늘의 비극을 낳고

시켰단,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 정보를 무시하거나 알려는 생각조차 없어서 어둠 속에 길을 잃고 고통 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명을 받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러 갔던 12지와 대표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기골 장태함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문제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먹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문제 앞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수많은 선지자, 믿음의 선진들이 외치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소경, 귀머거리가 되어서 악한 마귀에게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불만 흰히 밝히면 다 보일 텐데 말입니다. 정보는 이처럼 내 앞을 밝혀주는 등불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을 빛으로 이끄는 정보입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방하러 가는 목회자는 반드시 사전에 그 성도 개인과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동

## 목회는 사람과의 전쟁 마귀와 귀신과의 전쟁이다

봉우 이초석 목사

### 전쟁에 이기려면 정보와 무기다

있다. 이만큼 정확한 정보와 그에 따르는 신속 정확한 분석, 판단은 개인이나 기업이 나 국가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정보, 성도들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과 교회부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강조하셨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는 내가 목회 38년 동안 내 메시지의 18번처럼 강조한 말씀입니다. 지식, 곧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인이면서도 그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정보를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놓으

에서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란 걸 알고 믿었기에 출중한 기백으로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민 14:9).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크게 봅니다.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있으니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 다윗이 바라본 것은 골리앗의 장태함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은 갑옷과 투구를 의지하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당당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삼상 17:45-49).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성경 창세기부터 하나님 스스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또

네 골목의 맹견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자주 이야기했지요? 개가 짖는다고 야단쳐봐야 더 짖어댈 뿐입니다. 개가 좋아하는 고기를 주면, 곧 개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문제에 접근하든지 어프로치를 잘하는 비결은 상대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 문제는 저절로 풀립니다. 이것이 교회부흥과 성장의 비결입니다. 내가 오늘의 목회 성공을 이룬 비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 철저히 순종하려 애쓰고 노력한 것이요, 성도들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한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보부터 얻습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우크라이나를 도움시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695001-01-110736





##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창2:2~17)

# 에덴의 행복한 삶에는 조건이 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조건을 이행하면 보상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하나님이 꾀꾀하다, 까다롭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저는 아들들에게 “1등 하면 네 반 아이들 전체에게 아빠가 맛있는 것을 사줄게.”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1등을 하면’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파티였습니다. 제가 꾀꾀해서 조건을 내민 겁니까? 제가 파티를 안 해주려고 꼼수를 부린 겁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파티’가 주(主)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것’이 주(主)인 겁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제시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을 안 해주려고 조건을 내민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주려고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죄와 고통과 눈물이 없는  
낙원 에덴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모두 조건적 약속입니다. 왜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행복한 에덴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원인 에덴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단 하나의 조건을 지키지 않았습니 다. 약속을 꺾으니 당연히 대가가 있어야죠. 하나님은 약속 불이행에 대한 대가로 아담과 그의 아내인 하와를 낙원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에 손을 대지 말라는 조건을 단 것은 아담을 낙원에서 쫓아내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낙원 에덴의 행복을 누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에덴으로의 길을 여신 하나님은 다시 조건적 약속이행을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에덴으로 복귀하려면 먼저 이런 조건을 지켜라 이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이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 말씀이지요. 그리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그렇지 않으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 20:3~6)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벌을 준다는 것’이 주(主)가 아닙니다. ‘나를 믿어야 천국에 오니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에덴생활을 하려면 낙

다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  
 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  
 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신28:1).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1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복을 모  
 조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고, 우양까지도 복을 받으며, 하늘  
 의 보고를 여사 복을 주시며,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묘하죠? 어떤 사람들은 14절 아래에 있는  
 ‘그렇지 아니하면’에 더 신경을 씁니다. 조  
 건을 이행하면 주시는 복을 바  
 야 할 텐데, 왜 조건  
 을 이행하지 못  
 했을 때 받  
 는 저  
 주에



## 총회장 이초석 목사

신  
경을  
쓰는  
지  
모르겠습니  
다. 서류를 준비  
해가면 대충을 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왜 못해 갈  
경우를 생각합니까? 조건을 이행하면 되  
는데요.

또한 십일조를 하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  
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  
라”(말3:10). 이것이야말로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 현대판 선  
악과입니다. 선택도, 결과도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에 에텐이 찾아올  
리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  
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  
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  
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  
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  
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런데 우리끼리 용서하지 못해서 불편하게

살지 말고, 용서하고 편히 살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 받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셨고(눅6:37),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5:15)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고, 혹여 싸웠으면 화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경내가 평안하고,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지요? 하나님이 내  
건 조건은 이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  
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  
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12).  
부모에게  
효도  
하면



장  
수  
의  
축  
복을  
주

## 초석 목사

신다는 것입

니다. 에베소서

도 “네 아버지와 어머니

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

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

리라”(엡1:2~3)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으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

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가르쳐주신 겁니

다. ‘잘 되고 장수한다’에 초점을 맞춰버리

면 고르반을 낸다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

는 유대인의 꼴이 납니다(막7).

건강해야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

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

라 하시더라”(막16:17~18). 성령을 받은

자들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을 쫓

으라, 그리하면 귀신이 나가 병이 낫는

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그럼 어

찌겠습니까? 은행에 서류 제출 안 해서 대

출 못 받는 거랑 똑같은 게 되지요.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고요? 그것도 조건이 있습

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행2:38).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외에 더 필요한 것들이 많지요. 그것 역시 조건이행시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고 하셨습니다. 제발 죄악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6:38),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약4:10).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잠16:3)...

이렇듯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조  
건은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  
킬 수 있는 것들이고, 믿는 자의 당연한 도  
리입니다. 당연한 것이건만 이 조건을 지  
킬 때 보상도 하신다니 얼마나 좋은 하  
님이십니까?

## 하나님의 조건은 축복의 단서이다

그런데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내  
밀 때가 있습니다. 서원이지요. ‘~을 할 테  
니 ~을 해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면 영접하리  
나오는 첫 것으로 번제를 드리겠다고 한  
것이냐(삿11:30~31) 한나가 아들을 주시  
면 평생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고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삼상1:11). 이  
것 역시 내가 선(先) 이행해야 후(後) 하나  
님의 축복이 따릅니다. 저도 어려움이 있  
을 때마다 늘 서원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곤 합니다.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  
켜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조건을 내거실까요?’ 이는  
더욱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더욱  
성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  
라시기 때문이며,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  
서도 에덴의 삶을 누리고, 또 영원한 에덴  
까지 잘 오기를 바라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하면’은 제약이 아니라 축복의 단  
서입니다. 감사함으로 이를 실천하여 하  
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리시라.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청구서

며칠 전, 청구서가 하나 날아들었다. 보니  
까 이전에 살던 아파트관리비다. ‘지난 1월  
에 이미 서울로 이사 나왔는데... 무슨?’ 하  
고 들여다봤더니, 아뿔싸! 아파트관리비  
를 카드로 자동 결제되게 해두었는데, 아  
글쎄 해지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  
던 것이다. 혹시나 해서 이전 내역서들을  
들춰보니 지난달에도 역시 관리비가 결제  
되어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있는 것  
이었다.  
카드 회사에 확인해보니 전산상의 오류였  
단다.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이렇  
게 ‘설마’ 했던 일들이 언제든 나에게도 벌  
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생각  
이 깊어졌다.  
해지 신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언  
제든 내게로 청구서가 날아오듯, 지금 단  
호히 끊어버리지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한  
청구서들도 반드시 나를 찾아오게 될 것이  
다. 죄에 대한, 게으름에 대한, 충성되지 못  
함에 대한 청구서 말이다. 이것들이 나의  
인생에 발목을 잡고 손해를 끼칠 것은 자  
명한 일이다.  
몇 해 전, 구리 함유량이 높은 10원짜리  
옛날 동전 7억 원 가량을 녹여서 구리를  
추출한 다음, 이것을 팔아 20억을 벌어들  
인 사람들이 있었다. 내심 ‘참 지혜로운 사  
람들이네.’ 하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들  
이 모조리 붙잡혔다. ‘화폐관리법 위반’이  
란다. 내 돈이라고 이렇게 막 다루면 범죄  
자가 된다.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진짜 돈  
주인에게 화폐를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

이기 때문이다.  
내 시간이라고, 내 달란트라고, 하나님 법  
을 떠나 마구 사용하면 이 또한 처벌의 대  
상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참 주인은 따로 계시다. 우  
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관리하  
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내 것이 아니기에  
대충해도 된다고?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기에, 그리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  
이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신학교 강의를 앞둔 필자에게 이시대 목사  
님은 이렇게 권면해주셨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 잘하려고 해!”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역시나 이렇게 주문  
하셨다.  
“내가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는 것은 위선  
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  
나는 총회장 목사님을 통해 오직 진실만을  
배웠다. 위선과 가식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으셨다. 그래서 교단의 여느 목회자  
들처럼 스승의 발자취를 닮아가려 늘 몸부  
림친다. 내가 보낸 시간들에 대해 청구서  
가 날아들 것이기에... 당신에게도 청구서  
는 날아들 것이다. 반드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  
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  
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  
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22:11~12).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신앙논객 ::

##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한 친구가 “왜 요새 전도사님은 유독 하나  
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인 설교를 자주 하십니까?”라고 제게 질문  
을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  
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학기  
와 계절을 맞이하는 시점이고, 이제 막 대  
학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친구들도 대학  
부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수많은 선택  
을 하게 될 겁니다. 마치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을 이야기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는 아  
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  
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 청년·대학생들에  
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먼저 그의 나라  
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  
도록 선택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  
문을 들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하나님의 말  
씀을 전하되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런 면에 있어서 총회장 목사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생활에 직결되는 메시  
지였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  
는 일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명

절 때만 되면 목사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씀. 왜일  
까요? 그때가 성도들이 가족 또는 친척에  
게 휘둘려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기 딱 좋  
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도발할 때 우리  
교단은 전쟁을 막기 위한 평화통일 기도성  
회를 개최했고,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  
이나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자 매 예  
배 때마다 우크라이나 집회 영상을 보며 그  
들을 위해 중보기도와 구제모금을 했습니  
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심  
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말씀들이 단에  
서 선포될까요? 모이기에 힘쓰고, 잃어버  
린 첫사랑을 되찾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  
하라는 말씀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머지  
않아 산상집회, 수련회, 전도집회, 기도성  
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성  
령의 감동 따라 단에서 “이 일을 이렇게 하  
자!”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  
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야만 하  
고 순종하며 동참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에  
게 모든 필요한 것과 쓸 것을 더하실 것입  
니다(마6:33).

신혁주 전도사

:: 오늘의 메시지::

## 첫사랑

이맘때면 떠오르는 꽃이 있다. 바로 목련  
이다.  
어릴 적, 내 방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을  
때 참 고귀해 보였던 목련이다. 딸을 위  
해 아빠는 사랑하는 딸이 꽃을 보며 성장  
했으면 좋겠다며 목련나무를 가득 심어  
주셨다. 목련이 필 때면 난 늘 반가워하  
며 가족들에게 목련꽃이 피었다고 좋아  
라 했다. 창문을 통해 가득 피어났던 목련  
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때 알았다.  
목련이 참 매혹적이라는 것을 ...  
목련과의 첫 기억은 어른이 되어서도 잊  
지 못한다. 나는 목련과 그때부터 사랑에  
빠졌다. 장미도 좋고, 동백꽃도 좋아하고,  
작약도 참 좋아한다. 그렇지만 나의 첫사  
랑 목련을 이기지는 못한다. 바닥에 떨어  
진 꽃잎을 보면 누군가는 그런다. 지저분  
하다고. 그런데 나는 땅에 떨어진 꽃잎마  
저 아쉬워하며 속상해한다.  
정말 좋다. 목련이 그렇게 좋다. 첫사랑은

그런 건가 보다. 다른 계절에도 아련하게  
생각나는 목련처럼 말이다. 목련을 한참  
생각하다 보니,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  
던 때가 떠오른다.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간절하게 만났던  
중학생 소녀, 그때가 첫사랑인 듯싶다. 소  
중했던 주님과의 만남은 뜨거웠던 8월의  
여름을 기억하게 한다. 기도하며 만났고,  
찬양하며 만났다. 그냥 좋았다. 기도시간  
을 기다리면서 설렜던 그런 시간들이었  
다. 이 글을 쓰면서도 그 시절 그때를 생  
각하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그리고 지금은 묵직하  
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요일4:8).

이인영 집사  
ccbgrace@naver.com



:: 생명의 말씀 ::

## 범사에 감사하는 복

범사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  
는 사람이 있다.  
인생은 해석이다. 웃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  
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  
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과 사  
업장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  
가 걸을 수 있는데다가 차도 있다는 것  
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  
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  
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  
고, 온몸이 빠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  
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깻다면 그  
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  
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  
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내게 친구로 가  
까이 있음이 아니던가?  
인생은 해석이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  
가? 아니면 불행한가? 나를 행복하게  
할 사람도 불행하게 할 사람도 유일하  
게 나다. 그 누구도 나를 행복하게도 불  
행하게도 못한다. 내가 불행하다 여기  
면 불행할 것이고, 행복하다 여기면 행  
복할 것이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이 바로 범사에 감  
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도 있다.  
지금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닐지라도, 눈물의 골짜기 같을지라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해석한 다윗은 범사에 감사하  
는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처  
럼 해석만 잘하면 눈물골짜기가 변하여  
축복과 기쁨의 골짜기로 바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  
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우  
리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하면 행복은  
꽃을 들고 찾아올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라”(살전5:18).

임택함 목사



# 전쟁의 포화 속에서

2천 년 전,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2천 년 동안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2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 이리라”(렘16:15).

1897년,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은 약 193만 명이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직전에는 약 260만 명에 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 유대인이 늘어나고, 유대인의 문화가 자리 잡으며, 우크라이나인들과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들에게는 굳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 유대인들은 큰 시련을 맞이합니다. 유럽에서 유대인들 600만 명이 대학살을 당할 때, 이 중 160만 명이 우크라이나 유대인이었습니다. 특히 1941년 9월 29, 30일, 36시간 동안 우크라이나 키이우 외곽 바비아르 골짜기에서 33,771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소련, 아시아로 잠시 피해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재산과 직업을 되찾으려 했고, 그런 그들을 우크라이나인들은 반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문화를 지키는 행동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적대시 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재건되었다는 소식과 유럽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우크라이나 유대인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이들은 공산국가 소비에트 연방국의 국민으로, 돌아갈 자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련이 붕괴되면서 연방국들이 차례차례 독립을 선언하고 1991년 12월 1일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유대인을 핍박한 것을 사과하고 회당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이다.” 1991~2011년까지 약 1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오데사 항구를 떠나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 때,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터전을 떠나 선조들의 고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 전쟁으로 2014~2018년 10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인원은 3만 명 이상입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대인들의 고토귀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월 28일 자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유대기구인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5,000여 명이 이주를 문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유대인뿐만이 아

나라는 것입니다. 미국 성서공회 ABS의 로버트 브릭스회장은 CBN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인들 중 처음으로 성경 메시지를 접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성경을 사기 위해 목회자와 성도들이 몰려들어 복사본까지 소진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키이우 신학교는 공식 페이스북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지 우리 모두 기억하자.”는 글을 올려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이 전쟁으로 인해 유대인들과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이 함께 시편 31편을 읽으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월 7일 자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아나톨리 레이키네츠 우크라이나성서공회 사무차장은 이터너티뉴스(Eternity New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수석 랍비에게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시편 기도를 함께 하자는 뜻밖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전쟁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시야는 하나님과 같지 않기에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한 무릎을 부여잡고 힘겨운 숨을 토해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영신

**JC ACADEMY (유튜브로 생방송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노량진 교육관(드림스퀘어)**  
**문의 02. 533. 9191**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 오미크론, 건강하게 잘 넘어가기

전국적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확진되는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가까운 지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쉽게 감염이 되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속도로 가면 전체 인구의 면역력이 회복되고 나서야 끝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전의 감기나 독감보다 전파력이 빠른 특징을 보입니다.

오미크론은 아동 청소년들에게서는 일시적인 고열이 급히 크게 오르고 난 뒤 급격히 회복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해열제와 항생제 등으로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기질적인 폐질환이 있다면 확진 전후로 병원의 진료와 면역관리를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성인들의 경우는 심한 몸살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진료 전후로 인후통이 심한 경우 은교산을 함께 복용하거나, 몸살기가 심한 경우 갈근탕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증상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경우 청폐배독탕을 가까운 한의원에서 처방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오미크론 치료 이후에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경옥고나 기침이 심한 경우는 맥문동탕을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가까운 한의원이나 약국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장년층에서는 평소 폐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라지차나 오미자차를 마시거나 체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경옥고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오미크론 초기에 대처가 중요한데 바이러스가 인후에서 폐로 진행이 되지

않도록 가까운 한의원에서 청폐배독탕 등의 폐의 면역 및 회복력을 돕는 약을 몇 봉 구비해두고 발병 시 양약과 함께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인들과 동일하게 인후통과 근육통에 맞추어서 은교산과 갈근탕 등의 한방약을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의 강도를 빠르게 줄이고 회복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미크론의 전국적인 확산 속에서도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넘어가서 건강한 면역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 인간의 품격

지난 3월 27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영화 ‘MIB’, ‘알라딘’ 등에 출연했던 유명 흑인배우 ‘월 스미스’가 시상식의 사회자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린 것이다. 이 상황은 생중계되어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었고,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후보들, 게스트,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월 스미스’ 입장에서는 탈모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아내(제이다 핀켓 스미스)를 지키고자 한 방법이였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되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월 스미스’는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그는 정 많은 아버지의 이미지에서 통제 불능한 ‘폭력배’의 이미지가 되었고, 이번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나 그의 수상은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며, 그가 제작하고 있는 영화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이와는 다르게 같은 시상식장에서 품격 있는 모습을 보인 배우도 있었다. 그녀는 본인이 시상해야 하는 후보가 청각 장애 인임을 직시하고 그를 위해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의 수어를 준비해 그를 축하해주고 호명했다. 또, 수상자가 수상 소감을 양손을 써야하는 수어로 할 수 있도록 그의 트로피를 들어주었다. 그는 지난 2021년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 배우이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항상 우리 교인들에게 ‘품위와 품격’이라는 그릇 속에 예절을 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사건을 볼 때 ‘월 스미스’는 품위와 품격을 잃은 모습을, 윤여정 배우는 품위와 품격을 갖춘 명품인생을 보여주었다. ‘루이비통, 샤넬, 프라다’ 등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소장하려는 이유는 명품이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명품인생에는 ‘품위와 품격’이 있다. 꽃에는 향기가 있고, 음식에는 맛이 있다면, 사람에게에는 품격이 있다!

송현혜

